



리춘백 장군

리춘백 장군은 1910년 9월 4일에 원동
변강 연해주 하산구역 보로지노 촌에서 탄생하
시였다. 1918년에 향촌에서 소학교에 입학하여
1922년에 소학교를 마감하시고 다음 계속 초중
에서 공부하시며 1925년에 초중을 필하시였다.

향촌에는 고증이 없는 관계로 초중 졸업후 일년동
일은 하촌으로 유학하려 하시며 향교 향촌 학교에
서 소년단 지도원 일을 하시면서 주로 아버지의 뒤
를 돕고 농사일을 돕아주었다. 그 당시 원동에서 살
고 있는 한인 생활 형편에서 이곳에 유학간다는
문제는 험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공부하려는 생
각이 들끓는 리춘백 선생은 일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1926년에는 리선생의 결심에 고증이 있는 도시로 떠나려 하였으나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동에서 일어나고 큰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해삼 신한촌이라고 부르는 한인들이 집결하여사는 큰 한인촌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원동 변강에 고증이라고는 두곳 즉 블라디보스토크와 브로시예프 구역 노보키예프스크시에 있었으며, 무츠키시에 사범전문학교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인 대학은 아직 원동에 없었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는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로 가야 하였다.

리선생은 1926년에 해삼 한인 고증이 입학하여 우두한 선적으로 공부하면서 교내 각종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석하면서 특별히 공청회 사업에 열중하였다. 리선생은 1929년에 고증을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중앙 러시아 연도시들에 유학을 떠날수 없는 경제 호대가 없는 관계로 고증 졸업후 동 고증에서 하급반 교원으로, 소년단 교양자-지도원으로 일하기를 결정하였다. 리선생은 이 당시 비남자, 비장가 청년으로서 아쿠위엠크는 혼사 청년으로도 말았으나 아직 능률 습득성을 채가시지 못한 아쿠위엠크의 청백한 자기의 절개를 지키며 어린 후배들의 앞잡이 그대로 훈장이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1932년에 리선생은 장가를 들고 동년 9월에 붉은 군대에 초병되어 정규 군사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래 체질이 튼튼한 건강체에 상석까지 방불한 리선생은 일년이 지나자 하사관 학교에 추천되어 그것을 1934년 초에 필하고 특무상사의 군사 칭호를 받는 한편 부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당시에 리선생이 복무한 군부대는 원동변방 특설군인.
에 속한 76 연대였으나 이 연대는 본래 시베리아 간트르
시에 주둔하여 있다가 1929년에 있는 중동철도 사변
과 관련되어 원동에 이동하게 되었던바 그후 중동철
도 사변이 소련군대의 대응리로서 종결되자 76 연대는
제독 노왕령(우부외스크)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원동에서
군사 복무에 소모된 한인들은 전부 다 이 76 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이하이면 복한 원민군 단장 사령관 최필덕 장군,
45 연 사외주위 이광로 중령의 김병화 씨, 76 연대가 속한 32사
95 연대장 정필도르 이와노비치 대좌 (소련 조국전쟁시 싸와
도브시 방어전에서 영웅적으로 전사) 76 연대 중대장으로 중동
철도 사변에 참가하여 "적성" 훈장을 수여받고 대대장으로
승급하고, 황가리 부대장인 시 전후에서 전사한 소련 영웅적
지휘관 김홍국 (김 백드르 특기치, 중동철도 사변에 영웅
적의훈을 받취한 김 유경 소대장 등 영웅적 지휘관 들은 전
부 다 이 76 연대가 배출한 간부들이다.

이러한 권설적인 연대에 복무하게 된 것을 리훈백선생
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하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부
소대장으로 임명된것을 따주 기쁘게 접수하고 그후 하북
사변들을 모법적으로 전후 정치훈련에 참가하여 모법적 군
구분대로 1명 1명 계하고 리훈백 선생 자신은 추위 삼복 지
휘관으로 복히 포장을 받게 되었다. 그후 리선생은 중대
특무장으로 또 연대 민청 위원장까지 선거 받고 복무
하시다가 1936년 5월에 소련군대에서 제대되어
집에 돌아와 2개월간 제사다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사대에 공부하러 떠났다. 사대 입학 꼬리씨여에 물건
을 접수시킨 리훈백 선생은 붉은 군대 제대 군인으로

대학 입학 규정에 따라 무시험 합격권을 받고 한여 시 때
 려나 학부 학생이 되었다. 사대 1 학년을 필하라 쓰하린
 의 한인들에 대한 탄압정책으로 말미암아 원동변강의
 도 부처 권세 한인들을 강제 어주하게 되었다. 훈백 선생
 은 아무리 바쁜 환경에서라도 공부를 계속할 목적으로 강제
 이겨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대학과 함께 어등하게 되어
 까자흐 공화국 크를몰르다 시에 오게 되었다. 또 대학은
 그 대학의 모든 교육 기제와 직관을 각종 교과서와 다른
 책들을 전부다 실어 어등하게 하여야 다우 학생들을 대학
 과 같이 어등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대한 로동력적 방조를
 받기 위하여서였다. 또 학생들을 강제 어주어 불화함 시기에 학
 교와 같이 자키 행동을 동원하는것이 좋기로 하였다. 훈백 선
 생은 학생들 속에서 위신도 높였고 신망도 많아서 다른
 학생들이 선생을 따랐다. 학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마지
 막 졸업하는날 훈백 선생은 물론 대학생 자외회 위원
 장, 원청위원회 위원장에 선거를 받았는데 뜻밖 3-4
 학년 시기에선 학부 당위원장 대학 당 위원회 중앙 위원
 회 위원으로 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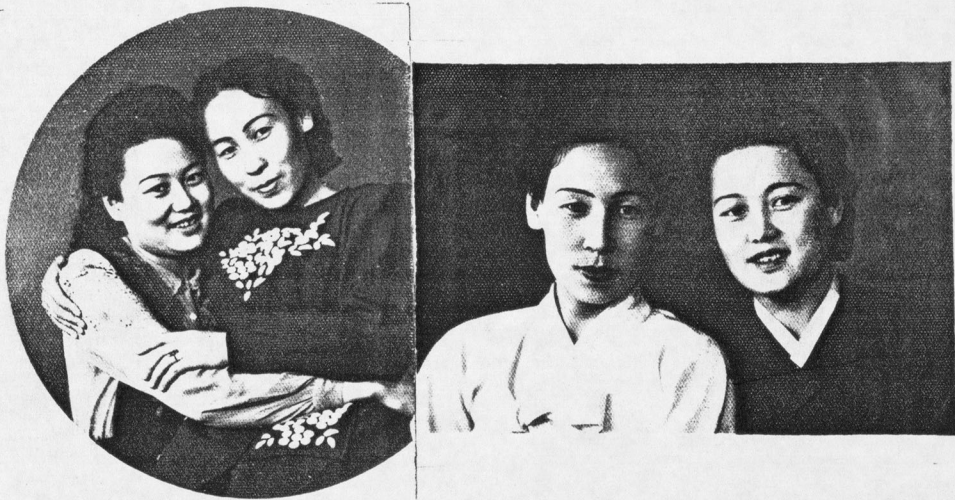
리훈백 선생은 1941년에 크를몰르다 사대 려시 학부
 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우르백 공화국 하우권 노동
 중 철학자 구역 기로브 훈 한인 협동조합에 있는
 중학교 려나 단임교원으로 임명되어 2년간 일
 하신다음 그 당시 동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감상호
 선생이 불려 온 때에 수교 되어 원동에 나가선 후
 그 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차후 북한에 나가실
 때까지 즉 1945년 4월 까지 일하시었다.



이 옷 사진은 리훈백 선생이 기로브 한인 고중에서
교장으로 계시시 찍은 것이다. 앞줄 중앙에 앉으신 분이
리훈백, 우편 박태섭-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장, 좌편-
박윤-조선인민군 30보사 정치부장, 또 곁에 앉으신분 박일우
-조선인민군 8단군 기술지휘국장, 뒷줄 우편 최분길(장은길)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리훈백 선생이 사임하신 이후에 ~~모든~~ 전부가 북한에
가서 책임적 간부로 일하셨다. 이상에 지적한 간부들 외에 드
끼로브 고중에서 일하시던 분은 현희안 선생- 내각직속 고
급지도학교 교무주임으로, 박태준 선생 북한 노동성 차장으로 계
신분들로 동 학교 출신이며, 리훈백 선생 직전에 교장으로
계시던 강양호 선생은 북한 내무성 총정치국장 겸 차장
개성 점선 단판 위원회 조종측 부석 대표 등 책임적 직위
들을 지내셨다. 어느때나 어디서든지 동지적 관계를 잘 맺
고 조직적 지도적 수반이 강한 리훈백 선생은 기로브 고중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리춘백 선생은 1945년 7월 말에
 초문 되어 초년군대에 복무하게 되었으며 최후 초년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을 해방시킨 초년군은 38선을
 정계로 하고 어남은 미군사령부, 어북은 소련 사령부가 조직되어
 조선 한반도를 분할하게 되었다. 리춘백 선생은 함경북도
 원산시 도사령부 총번역원으로 각 시군 사령부 일등어 해조타
 며 일하는 동안 북한 농지개혁, 다음 산업개혁등을 실시하는 한
 편 헌법준비 조직에도 많은 관심을 돌리면서 일하시었다. 다음
 1946년 8월에 조종되어 평양에 올라온후 내각각종 고급직은
 간부학교에 파견되어 전문 학사 과정을 이수하고 오차 세 제 대전
 이란 과목의 강판 교원을 임명하였다.



사진들은 리춘백 선생이 내각간부학교 교원으로 재직시
 리 선생의 부인 (첫 사진에서 좌, 두번째 사진에서 우) 정류드
 밀라와 새 다 지야나. 두분은 그 당시 내각간부학교에서
 로어 교원으로 일하시었다.

리춘백 선생은 사동간부학교에 가장 위신있는 교원이었다 그것은
 그 선생이 강의한 과목이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위신있는 과목이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오차 대전은 독일 파쇼주의가 패망하

고 초선이 승리자라 된 전쟁이며, 그 결과에 새로 9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직된과 북한도 일제에서 해방되고 사회주의
 국가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목의 강의를 진행할시 리선
 생은 자기 자신도 그 권력의 승리자의 한사람으로서 자존 자부
 심을 간혹리 알았다. 학교에서는 북한의 전체 고급 간부-각군당
 위원장, 인민위원장으로 부터 각도 위원장 부위원장, 각성 상
 등, 부상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48년도 부터는 남한 대의원
 반어라고 조직하고 남한에 들어오신 대의원들을 공부시키도
 한편 인민군 고급 정치 지도 간부-즉각 연대, 사단 몇 중앙
 정치 총국 고급 기관들로 대상으로 하인 한개의 조를 조직
 하여 공부시켰다.



사진은 리춘백 선생의 부인과 그의 아들 형제
 즉 리 블로리, 리 슐타와. 가치 찍은 것이다.

리춘백 선생은 내각 직속 간부학교, (또 학교로 사등간부
 학교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그 학교가 있던 지방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든 불렀다)에서 4년간이나 위신있게 일
 하시었으나, 1950년에 동족 상잔인 6.25가 시작

되자 자기가 신지할 위치는 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8.
 전선에 나갈것을 꿈꾸었으나 일은 정반대가 되었다. 이 당시에
 소련위원들은 제 1 전선 사령관이 중국 러슬랜드 벨트-아뚜르로 가는
 길에 평양에 들렀다가 소련군 정치부에 좋은 흥역원을 요구
 하니 정치부는 리훈백 선생을 지명하여 소련 전선 사령관
 타고 동행케 하였다. 전선 사령관은 소련으로 귀향하면서 리훈
 백 선생을 벨트-아뚜르에 주둔한 소련군 흥역원으로 남게된
 가셨다 리훈백 선생은 하늘을 없이, 국면 물어라 사령관이
 명령대로 1950년 10월까지 연 음대 월간 거기서 북쪽
 하게 되었다. 최후 다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북의
 장 허카이라 학교 사령관 김일성에게 제이하여 소련군
 제일 전선 사령관의 동의를 받아 북한에 귀환하게 되었으며,
 1950년 10월 말에 여 2월 12일 군대에 업대하게 되었으며,
 조선인민군 제 7군단 참모장으로 임명 되면서 소장 군사
 칭호를 받게 되었다. 1951년 2월에 제 7군단 여 2비
 군으로 부터 전선 부근 강원으로 석왕사에 여동 되면서 리훈
 백 선생을 군단 군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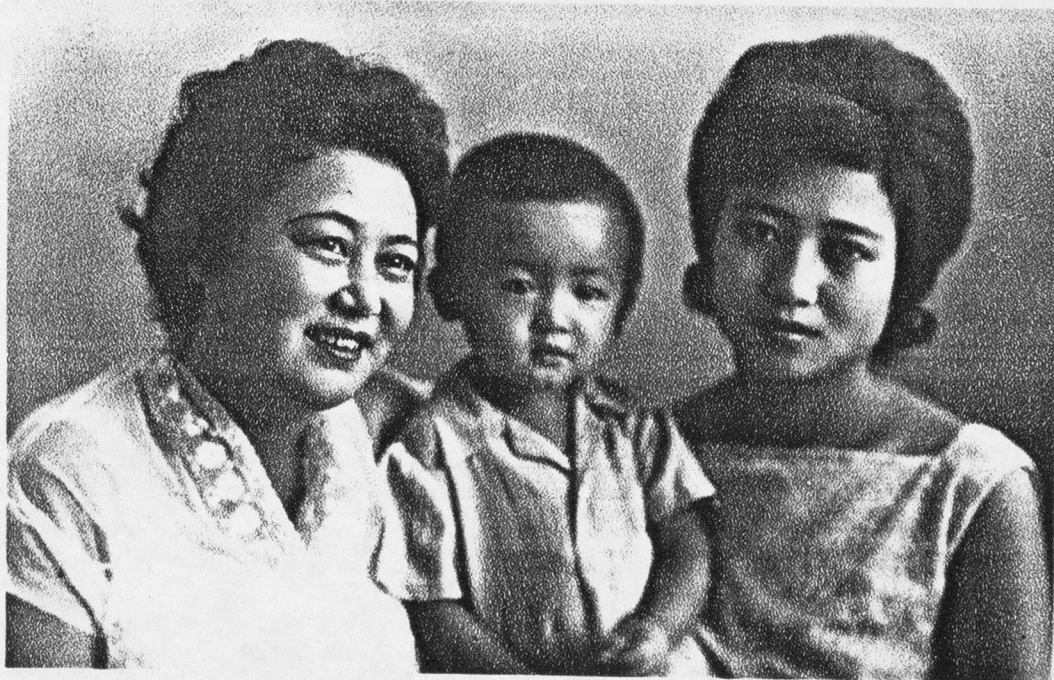
사진은 1951년 3월 중순경 배치 정형을 짐작
 하리면서 휴식하고 있는 장면: 좌로 부터: 리훈백 소장 -
 군사위원, 리영호 중장 군단 사령관, 김봉을 보위성 부상.

조선인민군 제 7 군단은 동북 전선의 주요 실역으로 방어하고
 있는 제 2 군단의 중요 지행력으로 있었으며 전쟁의 끝없는
 시기에 그의 연함부대들로 고쳐하여주며 공화국 영토들을 식구
 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항상 움직이고 고쳐되고
 있는 형편에 팔순까지 쇠사여 없어 잘 준비된 구별대나, 부대
 또는 연함부대를 전전한 사냥적 준비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별히 1950년 이후 한달
 도의 짧은 기간 주로 전지전을 진행하면서 장기간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 전차 사병과 기관차까지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다.
 전쟁도 아닌 평화로 어떤 형편에서 서로 적과 적은 통을
 맡겨두고 있었으나, 나가지도, 퇴보하지도 못하고 큰 무늬만 여한
 긴 세월로 끌고 있었다. 때때로 상급에서 산고 쉬운 농민들을
 말하리 "속히 김일성이 여기선, 어승만이 여기선 끝을 내면
 우리에게 농사 짓을수있는 조건을 달라고" 소리쳤다. 어리한
 형편에서 사병과 기관차의 규율은 자연히 저하되고 안일
 복화한 행동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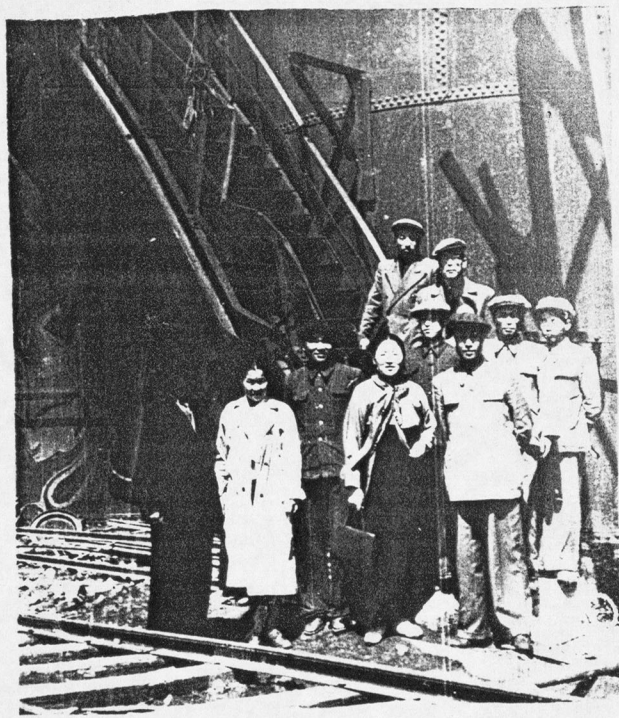
사진은 1952년 12월에 평양의 "보련선보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우로부터: 리춘백, 현희안, 신이철, 임월봉, 박계라, 김
 철우, 김영환, 장학봉. 당중앙 전원회의에 참가한 기회였다.

지루하게 끝낸 상륙방어 진지전은 근 30살 연이후 지방동순
 이나 도시나 할기없이 인민들의 생산활동을 제한시키 원민 생활은
 더 말할바 없이 파탄되어 식량등은 극도로 부족하고 추운 겨울
 어떤 어떤에서 전쟁의 종말만 기다리었다. 전쟁은 휴전의간
 없이 위하여 중단되었고 군사분계선은 동쪽 상반 개시전보다
 좀 달리 동해안에서는 고성에서 출발하여 철원 남쪽에
 이르러 압진강 계선을 따라 서해에 이르러 용진만으로
 북반에 이르러지게 되었다. 전쟁전 38선에 비하면 서
 해 반에 있어서는 남쪽 평야는 많이 북에 들어가고, 동해에 있
 는 어서는 산악지대가 많이 남한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점은 군사 정전단환에서 그 불건을 조인하는 1953년 7월 28일
 현재 양측 군이 차지하고 있는 불계 선을 실제 양측의 군사
 행동의 불계선으로 정하면서 그 불계선은 나 끼로 메타어
 비무장 지대로 정하여 정기 때 불어다.



사진은 리순백 선생의 딸 쓰태라가 자기
 아들 우리와 같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11.
 정권 조약이 조약이라 리춘백 선생은 군대에서 제대
 되어 생산 기지 복구사업에 동원되었다. 즉 1953년 9월
 에 송림시 황태 석철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되었다. 이 공장에
 제철은 조약에 있어서 제2차, 성진 제강 다듬에 손꼽
 히는 대공업공장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전에는 그터하였지만 전
 쟁 5년에 파괴되므로 확고한 공장은 완전한 정지상
 태에 이르러 용광로들은 아무런 제철로 생산하지 못
 하고, 전쟁전에는 많은 수로 생산하던 원공품은 물론 생산
 하지 못하였다.



사진은 1954년 3월에 리춘백 선생이 상북에서
 내려오신 당 정권책임자들과 함께 현지 시찰 하심.

리선생은 다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려면 그 의로동자들
 부터 먼저 살려야 하였다. 공장에서 생산이 정지되고 보니
 의로동자들은 전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밖에서 구사하였다. 공장
 은 생산 불리고 생산이 정지되고 보니 의로동자들은 제철을

리훈백 선생은 사실 당이 명령하는대로, 전쟁이 끝나자 광영의 견장을 예의주시하고 폐허가 된 재야의 황월에 달아가 그를 전심으로 복귀하여 국가에 생산품을 주는 최대의 성과를 올렸으나, 이곳으로 부하 복원에 들어온 간부들은 남한을 비롯하여, 동북연안, 소련 황해하여 모조리 침산하는 길에서는 어디로 피할 길이 없었다. 드디어 1954년 정월이 되자 리훈백 선생의 사상검사가 집행된다하여 중앙당 지르원 한병과 드양리 드원 함병이 내외와 제철 초급당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리훈백 선생의 역사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권징도, 복귀사실도 등 역사에서 공장은 잘 돌아간나, 나쁜 과거 역사를 언하의 등 지리에서 철심시켜 하부 직책에 조종하여, 근로자의 공산 의지로 한 일년간 단연된 다음 다시 고급지도적 직책에 등용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리훈백 선생의 과거 결핵이란 소련종파주의 - 즉, 소련에서 온 사람들끼리 몰려서 놀며, 소련을 파장-자랑만 하고, 후진적인 그에 대적식회려는 사대주의, 조현의 흐른것은 날기보이며, 소련적 관료주의에, 권력시기에 원산에 힘을두고 만일복화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서 리훈백 선생은 놀림까지 해 판 하였으며, 원래 어떤 면으로 보면 저 정직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항박한 리훈백은 자기의 실수는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으나 사상검토 당회의 결정은 어중경근에 현직에서 철심하고 재교육화로 하부에 봉환이라고 했다.

이런 결론을 받은 리훈백 선생은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내며 용서를 빌어하나 사상검토 총지르자 당중앙위원회장 김항만이는 그 편지를 읽고 혁명을 내면서 "당에서 내리 가라면서 내리갈것이지, 편지는 무슨 편지인가? 소련 관료에서 사상이 권위자를 용당 침산해야지..." 하였다.

리훤백 선생은 그래서 내각각부학교 시절에 3년 동안이나
 한 학교에 같이 있던 김창남이가 이런 말실적 반부 조직
 지도자라는 것을 그때에야 알고 13 년간이나 새조선 연설
 을 위하여 과연 약전고투하였지만 문제는 어디다 더 고부하여
 볼데도 없고, 어디서 적당한 절경을 받을데도 없다는 것을 원
 성한다음 경술, 경동혁, 김일, 기석복 등 8-7 명이 불여서
 "자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였는 모양이다 어서 특히
 더 관심을 받지 말고 모스크바를 돌아가자"고 결하고 1957
 10월에 평양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당중앙에 왔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리훤백 선생 일행은 8명이 불여서
 공산당 본부에 들어가 사실 이기로 보고한 다음 우크레인 공화국
 수도 다뉴케른에 가서 집을 드 배정받고 가족의 생활특례도
 생계결방으로도 절름을 받게 되었다.

다뉴케른에 도착한 일행은 우크레인 공화국 당중앙본부에
 찾아가 사정을 보고하니 당중앙 조직부는 별치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데, 시내 칠란야르 구역에 가서 사행들을 배정
 받아 가족들을 안정 시키고 아이들과 불여들의 취직문제
 도 학교 문제로 해결한다음 간부 8명은 다뉴케른 고급
 당학교에 가서 4년간 공부하면서 휴식하라고 하였다.
 "4년간 공부하는 동안, 강물이 많이 흘러서 환경이 변형
 되면 다시 조성에 귀국할 수 없으리니 모른다"고 하였다.
 사실 말뜻은 정당한 말이었다. 그 후 리훤백 선생 일
 행의 뒷꼬리를 붙고 계속 조선으로 복귀 노선에 귀국하여
 다뉴케른시, 알바다시 모스크바시 등에서 수 십명의
 이전 북한 간부들이 공부하였다. 전부다 4간씩 공부하였으
 나 "강물이 잘 흐르지 않았는지" 환경은 변형되지 않고,
 다시 북한에 돌아갈 간부로 없었다.

다만 북한에서 변경된 환경으로 인하여 소련 각 도시에 와서 공부하던 북한 유학생들이 수십명이 자기국적으로 거절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1950년에는 북한 학생 정권 모스크바 국제 대사 위상도씨가 북한 국적을 거절하고 소련의 신변 보호를 받아 모스크바 과학원에서 과학연구생으로 나와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4년여간 긴 세월은 지나가 학교를 졸업한 일행은 모스크바에서 각어한 직장에 배치될 일이 일화제 되었으며,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생들이 되고 취직도 하여, 상호 결혼도 하여 장가서 집도 보이게 되었다.



사진은 리순백 선생의 딸 셋째씨가 자기 남편과 같은 자기아들 우리, 이노리 아나와 이노리 못친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리순백 선생은 1961년에 고졸양성교를 졸업하고 다음해
 호시 내에 있는 고무공장 지배인으로 일년동안 일한후,
 자기는 한인들이 짐결하여 살고 있는 캄보에 가서 일하러나
 결심하고 카라갈비박 공화국에 가서 벵농사 국영농장 지배인
 으로 1980년 까지 일한후 70고령이 되자 특별 개별공
 연금을 수속하여 가지고 다시 타슈켄트시에 돌아와 평범한
 살고 있었다. 년령으로 보아서 70고령이었으나 리선생의
 사상은 전전한 공산주의자 진실한 사회주의자, 리론대로 조선을
 공산주의 국가로 개조하여 한인들은 누구나 활기있게 다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사상이 견결하였다. 리선생의 항상 고민하던
 열대인 조선대륙이었다. 어떻게하면 조선의 하를 특히 농업
 될것인가, 조선을 만들어 공산주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녀원하시
 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리론의 개인숭배주의로 퇴극되면 그 기본
 리에서 리할리하는것도 잘 리해 하였으므로, 공산주의 강령과
 도는 사회의 발전적 전망이 없고, 자본주의에 비하여 뒤떨어
 질수있는 리해하시였다. 그러나 리선생은 항상 중국이 예를
 들면서 공산주의 제도로 개방하고 경제제도를 사회주의 기본
 제도에 알맞게 조절하면 우수한 성리로 나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였다. 리선생은 주번이나 1990년에 1991년
 에 김일성의 초청을 받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1년
 에도 초청장을 받았지만 장남 별곡의 사망과 관련
 하여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병환으로
 면하여 더 갈수 없었다. 리선생은 북한을 방문한 자
 기 감상단에서 말씀하시기를 - 우리 일행 박영빈, 강철
 리순백, 황성복 리세호 등 51명이 김일성을 친히 만났는데
 "자기는 당신들이 그렇게 땅에서 처벌받고 조선에서 추방
 된것을 제때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고 하였다 - 고 하시였다 16

이렇게 말하신 다음 자기 일행 각각을 끌어 안아 보면서
 야, 참 무렵이 걸구나" 하시었다 - 고 하시었다. 김일성이
 이렇게 접대하여 주시나 그걸로 진심으로 믿음을 두도 없었나
 그러나 리춘백 선생은 그런 성대한 영접 이후 다시 북한에
 돌아갈 생각을 했는가? 하든 불응에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다.



사진은 1993년에 우육백공화국 중앙 병원에
 입원 하였을시 찍은 것이다.

리 선생은 1992년 4월에 장남 빌코리가 죽은 다음
 라임고성으로 언남여 건강은 매일 악화하여 졌다.
 리춘백 선생이 장기간 북한 고급지도 간부학교에서 일하신
 관계로 두만은 제자들이 남북한에서 살고 있다 또 그와
 형제들이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으나 북한 원산시와, 평
 양에도 4촌 5촌촌으로 되는 친척들이 있다가 하면
 서울에도 4촌들이 살고 있다 바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4촌 동생 권이연길씨는 러시아 원동방향에 단
 나리의 영일강사를 대동하여 큰법회에서 무역을 하고 있다.

리연길 선생은 현재 연세로 보아 40고지로 오르고 ^{18.}
있는 건전한 정치가로서 6.25 적폐에 복하여 1년 18년 단나
면서 40년 동안 리춘백 선생을 1년 18년 대변한바로 보았다
그러나 리춘백 선생이 조양을 떠나 소련에 귀향한 후
소식을 몰라 답답하던 차 1992년에 유르베크한 내셔셔일에
공무상 관계로 나가셨던 몇몇 인사들을 만나 리춘백 선생의 행
적을 지시하 일인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고 계획을 엮보던
차 1995년 5월에 관광단 형원으로 서북독일, 프랑스에
간다가 귀향중 모스크바에서 멈추고 유르베크공화국 하슈겐스
를 나와 리춘백 선생을 만나며, 또 그 자식들을 만나 접은
시간 일주일 같이나, 아주 반가운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수 있었다
리연길 선생은 리춘백 선생과 같이 복한바 나라 많은 일을
하시던 여러 간부들도 만나 반가운 인사는 물리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령이시고 복한에서 의선 없게 정치 생
활에 참가하신 박영빈 선생과 잠깐이나마 열정적 단화
가 진행되었다 박영빈 선생은 아직 소련군의 복한에
주둔하여 있을시 소련 대들로 논디꼬브 잠군의 같이 서울
에 가서에서 남한의 무력한 정치계 인사들과 만나 많은
인사를 나기위로 하였다. 때 문에 리연길 선생은 꼭 박영빈
선생을 만나 인사나물리고 가시겠다고 결심하니 박선생 님
에 가 뵙고 돌아와 - 참 기억력도 좋더라 - 고 하시었다.
리연길 선생은 공화국 한인 중앙문화 협회에 찾아가
김발드르 의원장을 만나시고 "우리말 큰 시전을 비롯한 대
량의 아주 진보한 서적들과 함께 현금 원조도 하여 주어
문화 협회 일꾼들을 기쁘게 하였다. 리춘백 선생은 리연길
선생이 집에 돌아가지자 병환이 점점 더하여 공화국 제 1 중
앙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아무런 효력으로 보지못하고 동년
즉 1993년 8월 3일에 영영히 잠드시었다.

1996년 7월 30일 하슈겐스에서 장항용. 18